

국민대학교 소장 한글본 『東稗洛誦』 연구

백승호(서울대)

- 1. 서론
- 2. 한문본 『東稗洛誦』 이본 검토
- 3. 국민대 소장 『東稗洛誦』의 구성과 체제
- 4. 국민대 소장 『東稗洛誦』의 번역 양상
- 5. 결론

1. 서론

『동패낙송(東稗洛誦)』은 줄옹(拙翁) 노명흠(盧命欽, 1713-1775)이 “세속에 떠돌아 전하는 이야기를 가려 수집하여”¹⁾ 찬술한 책이다. 노명흠의 자(字)는 천약(天若)이고 본관은 교하(交河)이다. 근래 소품문으로 주목 받고 있는 한원(漢源) 노궁(盧媿)이 그의 아들이다. 그는 익익재(翼翼齋) 홍봉한(洪鳳漢) 집안의 객(客)으로 있으면서 홍씨 집안의 자제들을 가르쳤다.²⁾

『동패낙송』은 1773-1775년 사이에 이루어진 책으로³⁾ 17세기 『어우야담(於于野談)』, 18세기 초반의 『천예록(天倪錄)』의 계보를 잇는 본격적인 야담집이다. 이후 19세기 『계서잡록(溪西雜錄)』, 『기문총화(記聞叢話)』, 『동야휘집(東野彙輯)』으로 이어지는 야담집에도 『동패낙송』의 상당 부분이 수용되어 있다.⁴⁾

본 논문은 새로 소개되는 자료인 국민대 소장 『동패낙송』의 구성과 체제를 검토하고 국민대 소장본의 번역양상을 살펴봄으로써 국민대 소장 한글본 『동패낙송』의 가치를 밝히려고 한다.

2. 한문본 『東稗洛誦』 이본 검토

현재 학계에 소개된 동패낙송의 이본은 모두 6종이다. 일본 동양문고(東洋文庫) 소장본, 일본 천리대(天理大) 소장본, 연세대학교 소장본, 이화여자대학교 소장본, 임형택 소장본, 한화그룹 아단문고 소장본이 그것이다. 이상의 『동패낙송』의 이본에 대한 연구는 정명기의 논의에 자세하다.⁵⁾

1) “搜羅世俗流傳之說，掇取百餘種，哀萃爲一書。”(洪樂受, 『東稗洛誦序』, 『杜溪集』 권6, 연세대학교 소장본)
2) “昔余幼少時，業文程課，公每見之，勤問不置，導其旨意，喻以古作者妙訣，又必使之把筆呼寫，潤色補虧，期於無疵而後已”(洪樂受, 위의 글). 『동패낙송』의 작자는 栖碧外史 海外蒐佚本 『동패낙송』에 실린 해제에서 임형택 선생이 이미 밝힌 바 있고 이후 『『東稗洛誦』 研究』(『韓國漢文學研究』 제23집, 한국한문학회, 1999, 307-351면)에서 구체적인 작자 고증 과정과 『동패낙송』의 작가의식과 구성에 대한 총괄적인 논의를 하였다. 김영진 교수는 「조선 후기 사대부의 야담 창작과 향유의 일양상」(『어문연구』 37, 안암어문학회, 1998, 21-45면)에서 노명흠·노궁 부자와 홍봉한 집안의 교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홍용한(洪龍漢)의 『장주집(長洲集)』, 홍낙수(洪樂受)의 『두계집(杜溪集)』, 홍직영(洪稷榮)의 『소주집(小洲集)』, 홍낙유(洪樂有)의 『금현집(今軒集)』, 홍취영(洪就榮)의 『녹은집(鹿隱集)』 등을 통해서 노명흠 부자의 생애를 재구성하였다.
3) 임형택, 위의 논문, 315면.
4) 임원혁, 文獻傳承에 의한 野譚의 變貌 樣相,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1998.
5) 정명기, 『東稗洛誦』 研究, 『원광한문학』 4집, 원광한문학회, 1990(『한국야담문학연구』 보고서, 1996, 311-337면 재수록); 정명기, 『동패낙송』 해제, 『고서해제』,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5, 295-302면, 아단문고 소장 『동패낙송』은 김영진 교수가 처음 언급하였

소장처	연세대 소장본	이화여대 소장본	임형택 소장본	동양문고 소장본	천리대 소장본
권책수	불분권 1책	2권2책 중 권2	2권 2책 중 권2	2권 2책	불분권 1책
필사년도	1874년(추정)		1834년		
형태사항	12行 30-45字, 無界; 27×17cm	四周單邊, 半郭 23.0 ×18.0 cm, 11行18字; 有界, ; 29.5 ×21.4 cm	10行 22字	無界, 10行 36-40字	無界, 10行 31-35字
수록 편수	78	37	38	57	113
편차	41-77화 순서가 이대본· 임형택본과 일치	연대본 후반부와 편차 일치, 임형택본과 편차 일치	제38화가 이대본보다 더 있음, 제38화는 연 대본 78화와 다름.	건권의 경우 편차가 연대·이대본 등과 다 름, 곤권 제34화부터 연대본 등과 편차순 서 일치, 누락된 작품 있음	28화까지 작품누락은 있지 만 연대본과 일치, 이후 「 계서잡록」·「파수록」소재 작품수록

이상의 이본들 가운데 가장 정리된 형태로 남아있는 선본은 연세대학교 소장본이다. 연세대 소장본은 필사본 불분권 1책으로 모두 78話의 한문 단편이 수록되어 있다. 표지 우측 상단에 갑술오월일(甲戌五月日)이라 표시되어 있다. 지질과 필체로 볼 때 이 갑술년은 1874년을 지칭할 가능성이 높다. 권수에 목록이 필사되어 있다.

이화여대 소장본은 필사본 2권 2책 가운데 제2권만 있는 결본으로서 모두 37話의 한문 단편이 수록되어 있다. 이 단편들은 연세대 소장본의 제41화부터 제77화에 해당하며 편차도 일치한다. 임형택 소장본의 경우도 필사본 2권 2책 가운데 제2권만 있는 결본으로 수록 작품과 편차가 이화여대본과 일치하나 맨 마지막에 「목면화기(木棉花記)」가 더 있어 총 38話가 수록되어 있다.

동양문고 소장본의 경우 필사본 건·곤 2권 2책인데 모두 57화(건권 23화, 곤권 34화)가 수록되어 있다. 수록 작품의 순서는 건권의 경우, 연세대 소장본과 완전히 다르게 뒤섞여 있으며 중간중간 빠진 단편이 있다. 곤권의 경우, 중간 중간 빠진 단편들이 있지만 제34화 「금산기(錦山妓)」조부터는 대체적으로 연세대 소장본 및 이화여대 소장본과 수록 편차가 비슷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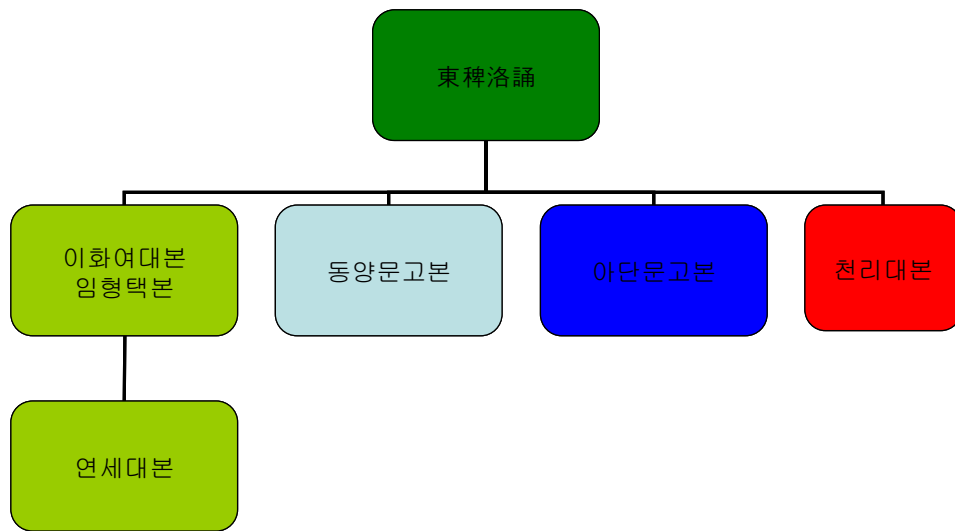
천리대 소장본은 불분권 1책으로 수록 작품이 113화인데 이본 가운데 가장 많은 단편을 수록하고 있다. 그러나 제28화인 「일타홍(一朵紅)」까지는 여타 소장본의 『동패낙송』과 일치하지만 중간에 빠진 작품이 있고 수록 편차도 연세대 소장본 및 동양문고 소장본과 다르다. 이후의 단편들은 오히려 『계서잡록』이나 『파수록(罷睡錄)』의 단편들과 일치한다. 이로 미루어볼 때 천리대 소장본 『동패낙송』은 수록 작품수는 많지만 후대에 필사된 것으로 보이고 『동패낙송』이 후대 야담집을 수용하여 원래의 모습을 잃은 것이다.

아단문고 소장본은 필사본 1권 1책으로 홍취영의 서문이 있으며 모두 36화의 한문 단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수록 순서는 연세대 소장본과 거의 일치하나 연세대본의 제67·68·69화가 제26·27·28화로 수록

다. 이밖에 경상대, 영남대에도 동패낙송이 소장되어 있다. 또한 『古鮮冊譜』에 보면 「한남서림매본목록(翰南書林賣本目錄)」에 동패낙송 1책 필사본이 전한다고 하였는데 위의 이본들인지 아니면 별도의 책인지는 미상이다.(前間恭作, 『古鮮冊譜』 3책 1496면)

되어 있고 제12화 허적에 관한 단편이 누락되었다.⁶⁾

이상에서 검토한 수록 작품과 수록 순서로 미루어볼 때 현전하는 『동패낙송』의 계열을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다. 연세대 소장본의 후반과 이화여대 소장본·임형택 소장본은 마지막 작품만 다를 뿐, 수록 작품 및 순서가 일치하므로 동일한 계열의 이본으로 볼 수 있다. 동양문고 소장본은 수록 순서가 위의 세 본과 다르지만 수록 작품이 위의 세 본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으므로 원(原) 『동패낙송』에서 갈라져나온 별개의 이본 계열로 볼 수 있다. 아단문고 소장본도 마찬가지이다. 천리대 소장본은 후대 야담 집들에 수록된 단편들이 많이 편입된 것으로 보아 원래의 『동패낙송』에서 더 떨어진 이본이다. 이상의 논의를 보기 쉽게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3. 국민대 소장 『東稗洛誦』의 구성과 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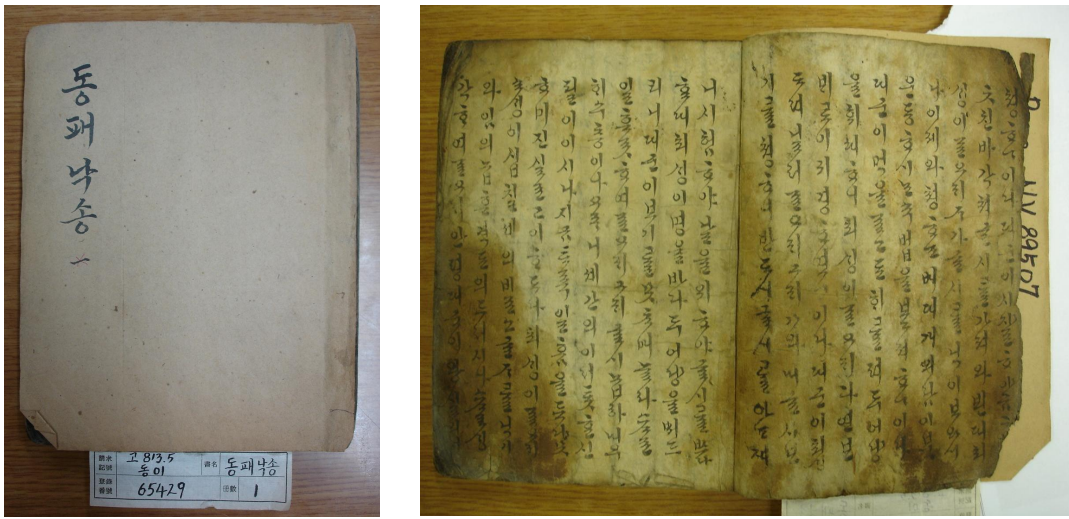
국민대학교 성곡도서관 소장 『동패낙송』은 수려한 궁체로 쓴 독립적인 책으로서 모두 8개의 단편이 실려 있다. 본 절에서는 새 자료 국민대 소장 『동패낙송』을 소개하고 이 책의 구성과 체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국민대 소장본과 별도로 『동패낙송』에 수록된 단편 중 한글로 번역된 3편을 정명기가 소개한 바 있다.⁷⁾ 고 김동욱 교수 소장 『육신전』 필사본 1책의 후반부에 「원성몽유록」이 실려 있고 그 뒤에 ‘동패낙송’이라는 제목아래 「구회장통신손획보」, 「혼궁환니몽시도」, 「고통신이인뉴서」 세 작품이 부록으로 실렸다.⁸⁾

6) 임형택 소장본과 아단문고 소장본은 아직 실견하지 못하였다. 임형택 소장본은 정명기의 논문을, 아단문고 소장본은 김영진의 논문을 참조하였다.

7) 정명기, 『東稗洛誦』 연구 (2), 『淵民學志』 제5집, 1997, 355-378면.

8) 『육신전』, 『羅孫本』筆寫本 古小說資料叢書 48, 보경문화사, 1991, 458-474면.



<국민대 소장 『동패낙송』> 사진

국민대 소장 『동패낙송』은 필사본 1권 1책으로, 고 김동욱 교수 소장본보다 작품 수가 많으며 7편의 겹치지 않는 작품이 수록되었다. 무엇보다 고 김동욱 교수 소장본은 독립적인 책이 아닌 부록인데 비해 국민대 소장 『동패낙송』은 독립적인 책이라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후로 국민대 소장 『동패낙송』 또는 국민대 소장본으로 칭함.) 이 책의 표제는 “동패낙송 —”이며 권수제는 “동패낙송권지일”이다. 형태사항은 10행 15-17자, 무계, 책크기 23.0x17.8cm이다. 표지는 구한말 내지 일제시대 때 개장한 것인데 개장할 당시 원래 책을 절단하여 지금과 같은 형태가 되었다. 지질은 두껍고 좋은 종이여서 이 책은 8편의 『동패낙송』 소재 단편의 한글 번역이 실려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장의 이면에 또 다른 필사자가 내훈 등을 필사했을 정도이다. 즉 원래는 44장이었을 책장이 분리되어 176면의 내용이 앞뒤로 적혀 있다. 각 장 이면에 필사된 작품 상단이 잘려나간 장이 여럿 있다. 봉면이 떨어져 그 사이사이 낙서가 있고 그 뒷장에 8편의 목록이 적혀있는데 다음과 같다.)⁹⁾

- 염한스명기도석 (念寒士名妓逃席)
- 고통신이인뉴서 (顧忠臣異人遺書)
- 기장가취서졸현 (器匠家贅婿猝顯)
- 지이동음관괴우 (智異洞蔭官奇遇)
- 사약승의스덕덕 (死惡僧義士積德)
- 제선고효조견위 (祭先考孝子見慰)
- 차일념상좌폐단 (差一念上座廢丹)
- 의쌍님명기수홍¹⁰⁾

9) 한자 제목은 필자가 짐작하여 붙인 것이다.

10) 동양문고 소장본과 이화여대 소장본에는 한문 단편에 제목이 없고, 천리대 소장본에는 각 한문 단편의 내용이 요약된 문장이 서미에 써있다. 연세대 소장본에는 8자로 된 제목이 붙어있는데 국민대 소장본의 7자 제목과 다르다. 고 김동욱 교수 소장본에 실려 있는 「고통신이인뉴서」만이 국민대 소장본과 제목이 일치한다. 똑같은 작품에 대해 제목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창작 당시 제목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후대에 작품 내용에 따라 제목이 붙여진 것임을 알 수 있다. 고 김동욱 교수 소장본의 고통신이인뉴서」는 국민대 소장본과 거의 일치하는데 필사과정에서 문맥을 잘못 파악한 오자들이 종종 있다.

이상의 작품에서 고통신이인뉴셔, 지이동음관귀우, 「제선고효조견위」, 차일념상좌괘단 는 신인·귀신에 대한 이야기이고, 엄한스명기도석, 「의쌍님명기슈홍」은 남녀관계에 관한 이야기이며 괴장가췌셔졸현, 「샤약승의스덕덕」은 흔하지 않은 일을 다루었지만 인물에 관한 일화에 속한다.

각 장의 이면에 적힌 내용은 『동패낙송』의 유려한 필체보다는 격이 떨어진다. 그 구체적인 목록은 다음과 같다. 내훈의 필체와 그 이후에 실린 가사 작품의 필체, 그리고 문인 호에 대한 한문 낙서의 필체가 다르다.

- 동서간도장규식
- 니훈제사
- 니훈제일편
- 제이편
- 제실편
- 제스편
- 제오편
- 제육편
- 제칠편
- (문인들 호 필사)
- 뵈틀가
- (언문풍월 낙서)
- 답반어사
- (낙서)
- 안평왕자..
- (문인들 호 필사)
- (낙서)

국민대 소장 『동패낙송』의 필사 연도는 마지막 수록된 「의쌍님명기슈홍」 끝 부분에 “갑인 계하 초삼 시 작호야 초오 못다”라는 필사기로 미루어 볼 때 1854년으로 정할 수 있다. 각 장의 이면에 쓰인 내훈과 가사 작품들에 대해서도 필사기가 남아있는데 “심” 호기로 일 엮서 빈 장 이셔 이 췌여 적성의 빠스니 슬피나니 우순 보소서”라는 내용만 있을 뿐 연대를 알려주는 단서는 없다. 하지만 자체로 볼 때 동패낙송이 필사된 1854년 이후, 특히 19세기 후반의 필적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국민대 소장 『동패낙송』에 실린 단편과 다른 한문 이본간 작품 수록 여부를 비교할 때 연세대 소장본에 8편 모두가 실려 있고 다른 이본간에는 각각 수록 작품의 차이가 있다. 각 이본간 작품 수록 여부와 수록 순서는 다음과 같다.¹¹⁾

국민대본	연세대본	이화여대본	임형택본	동양문고본	천리대본	나손본
엄한스명기도석	○(8번째)				○(7번째)	
고통신이인뉴셔	○(15번째)				○(10번째)	○(3번째)
괴장가췌셔졸현	○(58번째)	○(18번째)	○(18번째)	○(46번째)		

11) 수록순서는 정명기의 논문을 참고하였다.

지이동음관괴우	○(5번째)			○(7번째)	○(4번째)	
샤약승의스덕덕	○(37번째)			○(14번째)	○(26번째)	
제선고효조견위	○(60번째)	○(20번째)	○(20번째)	○(47번째)		
차일념상좌폐단	○(24번째)				○(18번째)	
의쌍님명기슈홍	○(33번째)			○(18번째)		

위 표를 볼 때 국민대 소장본의 작품 수록 순서는 여타의 한문본과 일치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한글본의 경우 다른 계통의 이본을 참조했다고 볼 수도 있고 한글본을 만들 때 작품을 선별하는 과정을 거쳤다고도 할 수 있다. 앞서 목록을 말할 때 살펴보았듯이 국민대 소장본 8편 가운데 4편이 신인·귀신에 관한 신이한 이야기였고, 2편이 남녀관계, 2편이 인물일화이다. 연세대 소장본 『동패낙송』 가운데 신이한 이야기는 14편, 남녀관계가 14편, 노비문제, 신분 갈등이 14편, 전란·국사가 9편임을 볼 때¹²⁾ 국민대 소장본은 신이한 이야기 위주로 작품을 선별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천리대 소장본 『동패낙송』을 보면 서미(書眉)에 “언문번역”, “언문”, “언” 등의 표시가 되어 있는 한문 단편이 있는데, 국민대 소장본 가운데 『염한스명기도석』, 『고통신이인뉴서』, 『차일념상좌폐단』, 『샤약승의스덕덕』에 해당하는 천리대 소장본 네 한문 단편의 서미에 “언” 표시가 되어 있고, 이외 35편의 한문단편 서미에 “언”자를 기입하였다. 이 ‘언’자 표시는 아마도 언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천리대 소장본 소장자가 나중에 기입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대 소장본 『동패낙송』의 권수제가 “동패낙송권지일”임을 볼 때 한글로 쓰여진 『동패낙송』이 더 남아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고 김동욱 교수 소장본의 구회장통신손확보¹³⁾에 해당하는 천리대 소장본 한문 단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언’자 표시가 되어 있다. 훈공환니몽시도¹⁴⁾에 해당하는 한문 단편은 천리대 소장본에 수록되어 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

4. 국민대 소장 『東稗洛誦』의 번역 양상

국민대 소장 『동패낙송』은 한문으로 쓰여진 『동패낙송』을 번역한 책을 전사(轉寫)한 것이다. 이 책이 한문본을 직접 번역한 원본이 아니라는 증거는 먼저 필사기에서 알 수 있다. 1854년 6월 3일부터 5일 사이 이틀간 황급히 번역을 마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연광정(練光亭)을 “녕광정”으로, 거지대장 윤세평(尹世平)을 “음세평”으로 팔역(八域)을 ‘팔년’ 등으로 오기(誤記)한 글자가 종종 보인다. 고유명사는 문맥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오자가 생기기 쉽고 팔역(八域)을 ‘팔년’으로 잘못 적은 것은 팔년으로 써도 문맥이 통하기 때문에 발생한 오자이다.

비록 한문으로 쓰인 『동패낙송』의 원 한글 번역본은 아니지만 국민대 소장본은 『동패낙송』의 번역 양상을 살펴보기에 충분한 자료이다. 구전되던 이야기가 한문 야담으로 정착되면서 기록자에 의해 가공과 변형이 이루어지듯이 한문본 야담이 한글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그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다. 본 장에서는 국민대 소장본의 번역 양상을 살펴보고 번역의 특징을 도출하기로 한다.

기본적으로 국민대 소장본의 번역은 한문본 해당 작품과 거의 일치하지만 약간의 가감이 있는 수준 있는 번역이다. 번역 과정에서 약간의 첨가와 탈락, 변형된 부분이 생겨났기 때문일 것이다. 한문 이본들 가운데에서는 대체적으로 연세대 소장본 해당 한문 단편과 그 내용이 일치하고 동양문고 소장본이나 천리대 소장본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12) 연세대본의 분류는 임형택의 논문을 따랐다.

(1)

안평대군 글씨가 턱하의 웃뜸이라 하루는 청직이가 드리워 고희여 곶오더 “동너 녀항 사롬 최가가 뵘옵기를 청흐나이다 「염한스명기도석」 (국민대 소장본)

匪懈堂筆妙冠天下, 洞內崔姓人請謁即招入(천리대 소장본)

匪懈堂筆妙冠天下, 一日, 有僉人入告曰: “洞內崔姓人請謁矣.” 匪懈堂即招入.(연세대 소장본)

(2)

대군이 먹을 곶고 도히를 퍼 두어 장을 휘쇄하니 최상이 곶오더 과연 보비로이 귀경하엿느이다 「염한스명기도석」 (국민대 소장본)

匪懈揮洒數幅, 崔曰: “果堪寶玩矣.” (천리대 소장본)

匪懈磨墨展紙, 揮洒數幅, 崔曰: “果堪寶玩矣.” (연세대 소장본)

(3)

관서의 누디와 물식이 가히 흥번 보왓죽하오니 신이 원컨대 도애 청평흥 때를 미쳐 목욕정스 일흠을 비러 장춧 가보고져 흥와 감히 고희나이다. 상이 곶오샤더 도타 흥시고 도신의게 분부흥샤 흥야곰 발네흥야 지공흥라 하시니 대군이 흥기를 점복흥여 지명의 맛당이 발흥려 흥더니 「염한스명기도석」 (국민대 소장본)

“關西物色可觀云, 臣願迨此時, 假沐浴呈辭之名, 欲往觀矣.” 上曰: “好矣.” 匪懈卜行期在再明. (천리대 소장본)

“關西物色樓台, 可堪一觀, 臣願迨此朝野清平, 假沐浴呈辭之名, 將欲往觀, 敢告.” 上曰: “好矣.” 分付道伯, 使之拔例支供, 匪懈卜行期, 明再明當發. (연세대 소장본)

(4)

보니 가라도 완악흥 중이 청암찰방 니흥을 겁박흥야 가마를 아사 뵘골로 올라가니 「사악승의스덕덕」 (국민대 소장본)

見靑岩察訪內行, 忽被頑僧之奪轎上山. (동양문고 소장본·천리대 소장본)

見靑岩察訪內行, 忽被可羅道頑僧之奪轎上山. (연세대 소장본)

한문 이본들 간에 차이를 보여주는 작품은 염한스명기도석 「사악승의스덕덕」이고 다른 작품의 경우 글자의 출입 정도의 차이만 보일 뿐 거의 동일하다. (1)에서 연세대 소장본은 천리대 소장본에 비교해 볼 때 “一日 有僉人入告曰”이라는 구절이 더 있는데 국민대 소장본에서도 “하루는 청직이가 드리워 고희여 곶오더”라고 하여 연세대 소장본과 일치한다. (2)에서 연세대 소장본은 “磨墨展紙” 구절이 더 있는데 국민대 소장본 역시 “먹을 곶고 도히를 퍼”라고 하였다. (3)에서 연세대 소장본은 “樓台, 可堪一觀” 구절과 “朝野清平”, “敢告”, “分付道伯, 使之拔例支供”, “明再明當發” 구절이 더 있는데 국민대 소장본은 이를 거의 그대로 번역하고 있다. 다만 연세대 소장본에서는 “分付道伯”이라 하였는데 국민대 소장본은 “도신의게 분부흥샤”로 되어 있고, “明再明當發”이라 하였는데 국민대 소장본은 ‘명일’은 빼고 “지명의 맛당이 발흥려 흥더니”라고만 되어 있어 한문 원문과 정확히 대응되지 않는다. (4)에서 연세대 소장본은 “可羅道”구절이 더 있는데 국민대 소장본도 이를 번역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국민대 소장본에서만 “니흥을 겁박흥야”라는 구절이 더 있다는 점이다.

이상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한글 번역본에서는 거의 대부분 연세대 소장본의 한문 내용을 따르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대 소장본과 연세대본 및 다른 한문본을 정확하게 똑같이 옮기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대 소장본이 한문본과 단어가 다르든지 한두 단어를 빼 다든지, 아니면 번역본에만 몇 구절이 더 있 다든지 하는 경우가 확인된다. 이러한 현상은 번역하는 과정에서 번역자의 개입이 들어간 부분인지, 아니면 연세대 소장본과 약간 다른 이본을 번역한 것인지 확정적인 판단을 내리기에 어려운 부분이다.

번역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연세대 소장본 등 현전하는 한문본의 내용 중 아주 일부분이 누락된 경우가 있다. 주로 이름이나 장소 같은 고유명사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제선고효 증견위 의 경우 약봉(藥峯) 서성(徐省)의 이름이 현전 한문본의 모든 이본에 표기되어 있는데, 국민대 소장 본에는 이러한 고유 명사가 빠져 있다. 서성의 아들 서경우(徐景雨)는 한문본에서 작품 초반부에는 서성의 아들이라고 지칭되다가 중반부에는 서상경우(徐相景雨)로, 후반부에는 서상(徐相)으로 지칭되는데, 국민대 소장본에는 서경우의 이름이 빠져 있으며 일관되게 ‘약봉 아들’ 또는 ‘그 아들’로 지칭하였다. 「괴장가궤서 줄현 에도 이장곤(李長坤)의 이름이 누락되었고, 이장곤을 ‘李’라고 지칭할 때도 작품 내에서는 계속 ‘명스’ (名士)라는 일관된 호칭을 사용하였다. 차일념상좌폐단 에서도 남궁두(南宮斗)가 연단술에 실패하고 속세 로 내려와 정읍에 살았다는 내용에서 ‘정읍’이라는 지명이 생략되었다. 사건 전개를 설명하는데 무관한 고 유명사가 자주 생략되거나 이를 무시하고 일관된 호칭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한글본인 국민대 소 장본이 한문야담에 비하여 정보보다는 이야기 중심으로 재편된 예라고 하겠다.

(5)

이에 백성의 쏘의게 당가드려 과연 두 쏘를 나흐니라 「차일념상좌폐단」(국민대 소장본)
乃娶百姓女居井邑, 果生二女. (천리대 소장본·연세대 소장본)

(6)

홀연 훈놈이 「고통신이인뉴셔」(국민대 소장본)
忽有平凉子所着一漢 (천리대 소장본)
忽有着平凉子常漢 (연세대 소장본)

(5)에서 이장곤이 정읍에 사는 백성의 딸과 결혼했다는 한문본의 내용이 국민대 소장본에서는 “정읍”이 라는 구체적인 정보가 누락되었다. (6)에서는 패랭이를 쓴 한 상놈이라는 구체적인 인물 묘사가 누락되었다. 백성이 정읍에 살든지 다른 곳에 살든지 서사 전개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패랭이를 썼는지 아닌지도 마 찬가지이다. 한문 기록에서 한글 기록으로 바뀌면서 서사와 상관이 없는 세부 묘사가 생략된 것이다.

홍직영은 동패낙송발(東裨洛誦跋) 에서 동패낙송이 열 가운데 여덟아홉이 어렸을 적 객들에게 들었던 패설들이지만 “어느 때 어느 사람의 일이라고 분명히 가리켰고, 어느 곳 어느 땅에서의 일이라고 증거하고 고증하여 야사와 가승의 빠진 것을 보충한” 책이라고 하였다.¹³⁾ 홍직영은 한문본 『동패낙송』이 신이한 이 야기를 많이 수록하여 그 진위를 의심받을 수 있지만 인명과 지명을 근거로 붙였기 때문에 맹랑하지는 않 을 것이라고 그 의의를 인정한 것이다.

『동패낙송』이 잡거나 일화집이라기보다는 본격적인 야담집임에는 분명하지만 기본적으로 조선시대 기록 과 정보를 담당하는 문자인 한문으로 쓰여진 텍스트이다. 그렇게 때문에 홍직영은 “야사와 가승의 빠진 것 을 보충하였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그런데 국민대 소장본 『동패낙송』은 한문을 한글로 번역하면서 이러한 측면보다는 이야기 구조에 초점이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

13) “兒時所聞者, 幾居十之七八, 而鄙俚化爲新奇, 虛無變以典實, 類是某時某人, 明示指的, 某處某地, 可驗考證, 自有徵信而不誣者存, 採野史之闕略, 捨家乘之遺漏.”(洪稷榮, 東裨洛誦跋, 『小洲集』 권49, 연세대학교 소장본)

다음으로는 국민대 소장본에 첨가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국민대 소장본 『동패낙송』에는 여타 한문본에 없는 구절들이 첨가된 경우가 꽤 있다. 한문본에는 없고 한글본에만 첨가되어 있는 내용은 대부분 단어 수준의 간략한 내용이다. 다음 예를 살펴보면 그 경향을 짐작할 수 있다.

(7)

대군이 주벽호야 안자 나로솔 다듬고 담쇠즈약하고 신치를 과요호여 그 기성의게 눈을 쓰스디 「엄한스명기도석」 (국민대 소장본)

匪懈主壁而坐, 掀髯談笑, 誇耀神采, 注目厥妓. (천리대 소장본·연세대 소장본)

(8)

이제 즈가 하교를 밧즈와 과계를 호고 뻗느이다 「엄한스명기도석」 (국민대 소장본)

“今承大監之教, 纔破戒矣.” (천리대 소장본·연세대 소장본)

(9)

대로의 가기는 임의 절원훈디라 「고통신이인뉴서」 (국민대 소장본)

大路已絕遠 (천리대 소장본·연세대 소장본)

(10)

그 녀의 물을 박의 쓰고 버들넙 훌훌 터 물의 싹여 주거늘 「괴장가춰셔졸현」 (국민대 소장본)

女子澗水於瓢, 將柳葉浮以致 (동양문고 소장본·연세대 소장본)

(11)

미양 누른밥을 ㄹ만이 더 담야 주어 「괴장가춰셔졸현」 (국민대 소장본)

每以鼎底焦飯益之 (동양문고 소장본·연세대 소장본)

위의 예문에서 한글본에 첨가된 부분은 현전 한문본과 다른 이본을 보고 번역했다기보다는 한글 번역에 있어서 문맥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한두 단어가 첨가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7)의 “나로솔 다듬고”, (8)의 “뻗느이다”, (9)의 “가기는”, (11)의 “ㄹ만이” 같은 경우가 그러하다. 하지만 (10)의 ‘훌훌’ 같은 의성어는 국민대 소장본이 한문본을 직접 번역했다고 보기 어려운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

하지만 국민대 소장본 『동패낙송』에는 단순히 한문을 한글로 옮기는 과정에서 언어의 차이로 인해 첨가되었다고 보기에 어려운 예도 있다. 한글본에는 있는데 한문본에는 없는 부분이 다른 한문 이본을 보고 번역한 것인지 아니면 번역하는 과정에서 문맥에 맞게 번역자가 일부 개작한 것인지는 더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다음의 예들은 현전하는 한문 이본 가운데에서는 한글 번역과 일치하는 경우를 찾을 수 없다.

(12)

대군이 무식하미 이에 극훈디라. 「엄한스명기도석」 (국민대 소장본)

匪懈失色. (천리대 소장본·연세대 소장본)

(13)

가히 삼십니를 어더 촌점의 다뎡기가 쉬으니 「고통신이인뉴셔」(국민대 소장본)
可減三十里程 (천리대 소장본·연세대 소장본)

(14)

삼문이 점 ” 의심을 풀고 도 잇는 어른인가 ㅎ여 곶오더 장인이 국냥과 식견으로 엇디ㅎ여 공산의 종노를 ㅎ
는다 「고통신이인뉴셔」(국민대 소장본)
公曰: “以叟丈之幹局識解, 何終老窮山?” (천리대 소장본·연세대 소장본)

(15)

잘 도라갈디어다 새배 썬날 제 고타보다 못ㅎ리라 하고 인하야 작별ㅎ고 나왔더니 이튿날 새벽의 노옹의 말
을 의지하어 동으로 도라갈 시 「고통신이인뉴셔」(국민대 소장본)
遂與敍別. 翌曉, 依翁言東還. (천리대 소장본·연세대 소장본)

(16)

ㅁ옴의 민망ㅎ여 ㅎ더니 밋 집의 밋츠매 「고통신이인뉴셔」(국민대 소장본)
及抵家門 (천리대 소장본·연세대 소장본)

위의 예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작중 인물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부분이 첨가되어 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인물간 대화 부분이 더 늘어났다는 점이다. (12)는 “이에 극ㅎ디라”하여 안평대군의 무색한 마음을 더 강조하였고 (14)는 성삼문이 도사에게 마음을 허락하어 물어보는 속마음을 “삼문이 점 ” 의심을 풀고 도 잇는 어른인가 ㅎ여”라고 하였다. (16)도 “ㅁ옴의 민망ㅎ여 ㅎ더니”라고 주인공의 마음을 서술하는 표현이 더 들어갔다. 인물간 대화가 첨가된 부분은 (13)에서 나쁜 여인이 아이를 피는 말을 할 때 “촌점의 다뎡기가 쉬으니”라고 더 강조되었고 (15)에서 도사가 이별의 말을 할 때 한문본에서는 전혀 대사가 없는데 국민대 소장본에서는 “잘 도라갈디어다 새배 썬날 제 고타보다 못ㅎ리라”라고 도사의 말이 아예 새로 첨가 되었다.

이러한 예는 작품의 사건 전개를 보다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해 번역자가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난한 최생에게만 기생이 관심을 갖자 안평대군의 낮빛이 변한 것을 “대군이 무식하미 이에 극ㅎ디라”라고 번역자가 강조하여 번역하였고, 때로는 “삼문이 점 ” 의심을 풀고 도 잇는 어른인가 ㅎ여”처럼 작중인물의 생각도 번역자가 해석하여 첨입하였다. 또 이인과 이별하는 장면에서는 대화를 더 넣어서 극적인 요소를 더하였다.

위의 예처럼 한문본에 없는 내용을 첨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문본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것을 변형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한문 내용을 문맥을 보고 추측하여 풀이하는 과정에서 한문본과 다른 번역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17)

구디 스양ㅎ대 쥬옹이 곶오더 그러ㅎ면 밧디 아니ㅎ야도 해롭디 아니ㅎ거니와 종의 곳의 가기는 결단코 가티 아니ㅎ니 바로 동으로 도라가미 맛당ㅎ니라 이거시 노부의 서럭 스랑ㅎ는 뜻이로라 「고통신이인뉴셔」(국민대 소장본)

乃辭以無名與受. 翁曰: “然則置之, 而奴所則決不可往, 直爲東還, 千萬望也.” (천리대 소장본)

乃辭以無名與受. 翁曰: “然則置之勿論, 而往抵奴所則決不可, 直爲東還, 千萬望也. (연세대 소장본)

(18)

뉴기장이 곁오더 내 미양 손소 가도 잘 밧티기 쉽디 못흐거든 사회궂티 미렬흔 거시 었디 가 밧틸가본다 「괴장가췌서졸현」 (국민대 소장본)

主翁曰: “吾每自行, 亦多見退, 如君癡騃者, 決難無事準納, 不可付送矣.” (동양문고 소장본·연세대 소장본)

위의 예에서 보듯이 한문본과 한글 번역본의 큰 뜻은 서로 통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확히 일대일로 대응하는 번역이 아닌 경우가 종종 있다. (17)에서 연세대 소장본은 “주고받을 명분이 없다고 사양하니, 주옹이 그렇다면 그냥 두고 논하지 마시게”라는 의미로 번역해야 하는데, 국민대 소장본은 “구디 스양흐대 주옹이 곁오더 그러흐면 밧디 아니흐야도 해롭디 아니흐거니와”라고 하여 선물을 사양하는 행위의 의미만 강조하여 번역하였다. (18)에서 한문본들은 “무사히 준납(準納)하기가 결단코 어려우니 그에게 딸려 보낼 수 없다”는 내용인데 ‘돈이나 물품 따위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바친다’는 준납(準納)이라는 용어 대신 “잘 밧티기 쉽디 못흐거든”이라고 대강 그 뜻만을 풀이하였으며 “사회궂티 미렬흔 거시 었디 가 밧틸가본다”라고 유기장의 대사가 첨가되어 장면이 더 생생하게 부각되었다.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한문의 뜻을 한글로 쉽게 풀이하려다가 생기는 듯 하다. 즉 국민대 소장본 『동패낙송』의 한글 번역은 한문본의 해당 단편과 거의 일대일로 대응하지만 부분 부분 우리말 식으로 번역하다 한문본에서 변형된 번역이 나온 것이다.

(19)

음관이 곁오더 우리 언제 친흐미 잇느냐 「지이동음관괴우」 (국민대 소장본)

“吾輩安有從前雅分乎?” (동양문고 소장본·천리대 소장본·연세대 소장본)

(20)

역하인이 중놈의 용력을 무서이 너겨 「사악송의스덕덕」 (국민대 소장본)

驛下人受其打踢 (동양문고 소장본·천리대 소장본·연세대 소장본)

(21)

이거시 네 편지라 처음 공 바든 거시 오빅 냥이 되니 문져 보내여 혼슈를 출히게 호고 맛당이 니어 슈습혀여 천 〃 이 도라가안노라 흐엿는 고로 그 돈을 목금 혼슈를 경영호노라 「고통신이인뉴셔」 (국민대 소장본)

“此汝自奴所先送之書也. 書中謂以初來徵貢贖良, 已爲五百金, 恐後婚期先送云, 故以其來者辦具綽有餘裕.”(천리대 소장본)

“此汝自奴所而送書也. 書中謂以初到以來徵貢贖良, 已爲五百金, 恐後婚期先送現在錢云. 故以其來者辦具綽有餘裕於婚用矣.”(연세대 소장본)

(19)에서는 “有從前雅分”이 “우리 언제 친흐미 잇느냐”로, (20)에서는 “受其打踢”이 “중놈의 용력을 무서이 너겨”로 전혀 다른 번역을 하였다. (21)에서는 한문본의 “贖良”, “恐後婚期” 등의 번역이 빠져 있으며 “故

以其來者辦具綽有餘裕於婚用矣” 구절은 “그 돈을 목금 혼슈를 경영호노라”로 다르게 번역되었으며, “맛당이 니어 슈습호여 천”이 도라가안노라”라는 한문본에 없는 구절이 더 있다. 이처럼 문맥만으로 번역한 듯한 구절들이 종종 보이는데 이것이 번역상의 오류인지 아니면 다른 한문본을 보고 번역한 것인지는 판단하기가 어렵다.

(22)

도령이 청명하고 군현이 휘진홀 시 그 명스름 다시 교리를 제슈하고 「괴장가춰셔졸현」(국민대 소장본)
朝廷更化, 罪廢者咸復官陞資, 李亦除校理. (동양문고 소장본·연세대 소장본)

(23)

내 시방 가니 그더 니일 나와 작별호미 가흐다 「괴장가춰셔졸현」(국민대 소장본)
“吾今出去, 君待明日出來, 以議行事, 可也.”(동양문고 소장본·연세대 소장본)

(22)는 “朝廷更化, 罪廢者咸復官陞資”라는 한문 원문과는 상관 없이 당시 관용어처럼 “도령이 청명하고 군현이 휘진홀 식”라고 번역을 하였으며, 이장곤이라는 특정 인물을 서사구조상의 주인공인 명사(名士)로 지칭하였다. (23)은 “君待明日出來, 以議行事, 可也”를 “그더 니일 나와 작별호미 가흐다”로 번역하였는데 이는 “갈 일을 의논하기”로 한 한문본과 의미가 전혀 다른 번역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국민대 소장본 『동패낙송』의 번역 양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문에서 한글로 문자가 달라지면서 한문본에서 나타났던 인명, 지명 등의 구체적인 정보가 흔히 생략되거나 보통 명사로 대체되었다. 둘째, 작중 인물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부분이 첨가되거나 인물간 대화 부분이 더 늘어나서 장면의 극적인 효과를 살렸다. 셋째, 서사 구조상 긴요하지 않고, 한문 문장도 복잡한 경우 이를 축약하거나 변형해서 번역했다. 넷째, 한문본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문맥만 보고 번역한 경우도 있었다. 이상의 경향은 한문본 『동패낙송』이 한글로 번역되면서 사실을 기록한다는 의식은 약화되고, 이야기를 전달한다는 의식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텍스트에 일부 변화가 생긴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5. 결론

국민대 소장 『동패낙송』은 『어우야담(於于野談)』과 『청구야담(靑邱野談)』 사이에 위치하는 야담의 한글 번역본이다.¹⁴⁾ 국민대 소장 『동패낙송』은 필사된 서체나 이면에 필사된 동서간도장규식, 내훈, 「뵈름가 같은 작품으로 미루어 볼 때 여성 독자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책인데, 원래 채택될 당시에는 상층 사대 부가에서 읽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필사 시기는 1854년이다.

국민대 소장 『동패낙송』에 실린 여덟 편의 단편들은 대부분 한문본 해당 단편들과 일대일 대응하는 번역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작품의 중심인물에 대한 정보성을 띤 이름, 자호, 지명 등 고유명사를 생략하기도 하고 호칭을 통일하여 단편에서 일관된 호칭을 유지하였으며, 서사에 긴요하지 않은 단락을 축약하여 핵심을 드러내는 부분도 상당하다. 독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말 표현상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한문본에는 없는 한

14) 『어우야담』의 한글 번역본은 1960년 통문관에서 구황실 소장본을 등사하여 출간하였고, 『청구야담』은 규장각에 2종이 소장되어 있다. (유몽인, 『어우야담』, 통문관, 1960; 『청구야담』 I(상·중·하)II(상·중·하),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999)

두 단어를 첨가하기도 하였으며 한문본과 별개로 문맥상 번역하여 한문본에서 변형된 부분도 있다. 한문본 『동패낙송』이 한글로 번역되면서 기록정보다는 서사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텍스트에 일부 변화가 있었다.

참고문헌

- 『동패낙송』, 국민대학교 소장본.
『東稗洛誦』, 동양문고 소장본.
『東稗洛誦』, 연세대 소장본.
『東稗洛誦』, 친리대 소장본.
『東稗洛誦』, 『韓國野談資料集成』1, 계명문화사, 1987.
『육신전』, 『(羅孫本)筆寫本 古小說資料叢書』 48, 보경문화사, 1991.
洪樂受, 『杜溪集』, 연세대학교 소장본.
洪稷榮, 『小洲集』, 연세대학교 소장본.
- 김영진, 「조선후기 사대부의 야담 창작과 향유의 일양상」, 『어문연구』 37, 안암어문학회, 1998.
임완혁, 「文獻傳承에 의한 野譚의 變貌 樣相」,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1998.
임형택, 「『東稗洛誦』 研究」, 『韓國漢文學研究』 제23집, 한국한문학회, 1999.
정명기, 「『東稗洛誦』 研究 (2)」, 『淵民學志』 제5집, 1997.
_____, 「『東稗洛誦』 研究」, 『원광한문학』 4집, 원광한문학회, 1990(『한국야담문학연구』 보고서, 1996, 311-337면 재 수록)
_____, 「『동패낙송』 해제」, 『고서해제』,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5.
- 前間恭作, 『古鮮冊譜』.

The Study on Dong Pae Nag Song belonged to GugMin University library

BAEK, Seungho

This essay studied the structure and the meaning of newly found Dong Pae Nag Song which is belonged to GugMin University library. Dong Pae Nag Song belonged to GugMin University library is written with gracious court calligraphy. It contains 8 fouteilles. It is a korean translated version of ancient chinese Dong Pae Nag Song. The aspect of translation in Dong Pae Nag Song belonged to GugMin University library is: first, while ancinet chinese changed with ancient korean, the specific information such as names, geographical designations were omitted or alternated with common nouns; second, the korean version Dong Pae Nag Song emphasized on a dramatic effect by extending the conversation between characters and showing the mental state of the character; In the translation of complicated chinese, it was summerized or modiflicated; fourth, there are totally original contents which were not contained in chinese version. This tendency means the korean version has narrative figures rather than informative figure because of changing language.

Key words: Dong Pae Nag Song belonged to GugMin University library, a different version of Dong Pae Nag Song, Korean version, The aspect of translation.

<국민대 소장본 동패낙송 원문>

염한스명기도석
고룡신이인뉴서
괴장가체서졸현
지이동음관괴우
샤약승의스덕덕
제선고호스견위
차일념상좌□□
의쌍님명기슈홍

동패낙송권지일

염한사명기도석

안평대군 글시가 텃하의 웃듬이라 하루는 청직이가 드러와 고히여 곱오디 “동너 녀항 사름최가가 뵈옵기
를 청호나이다 대군이 즉시 불려드리니 모침호고 의폐호 일 한시라 대군이 곱오디 그디가 엇디와 날을 좃
난고 호니 최성이 더왈 즈기 글시가 세상의 일흠나니 호 번 보기를 원호여 감□ 청호나이다 대군이 시찰호
야 금□□ 곳친바 각쳐 글시를 가져와 빈대 최성이 곱오디 즈가 글시를 너이 보와시나 이제와 청호는 배
대개 외람이 붓 운동호시는 슈법을 보고져 호니이다 대군이 먹을 곱고 도희를 퍼 두어 장을 휘쇄호니 최성
이 곱오디 과연 보비로이 귀경하엿는이다 대군이 최성드려 닐러 곱오디 그디 가히 내 글시 보기를 청호니
반드시 글시를 아는 재니 시험호야 날을 위호야 글시를 쓰라 호대 최성이 명을 바다 두어 닻을 빼 드리니
대군이 보기를 못츠매 놀라 스스로 일흔 듯하여 곱오디 그디 글시놓하 니 우히 수 층이나 오르니 세간의
이러듯호 신필이 이시나 지금토록 일흠을 듯디 못호미 진실로 고이호도다. 최성이 곱오디 쇼성이 십칠세의
비로소 글즈를 너이와 임의 놓흔 격도의 드러시나 스스로 생각호여 곱오디 안평대군이 왕실의 공즈로서 글
시가 텃하의 일흠나니 □ 글시 호 번 세상의 난죽 반드시 그 일흠을 그리울 거시니 니 이미 천호 사름으로
서 엇디 감히 이를 호리오 호고 드디여 밍세호야 므옴의 부술 손의잡디 아니호와습더니 이제 즈가 하교를
밧즈와 파계를 호고 뵈는이다 대군이 곱오디 그디 뿐 바 글시를 곱츠와 집안의 던홀 보비를 삼고져 호니
모름죽이 머물고 갈디어다. 최성이 곱오디 쇼성의 쇼집이 잇스오니 결단코 가히 슈적으로 호여금 사름의 눈
의 뵈디 아니호려 하느니이다 호고 드디여 글시를 쓰즈니 대군이 곱오디 모름죽이 그디 일로브터 원”이
와 츄츄디어다 최성이 하디고 간후 여러 히 되드록 성식이 업는디라 그 때 평양부의 호 일흠난 기성이 이시
니 지조와 얼굴이 절등하게 아름답고 나히 바야호로 십칠 세로디 눈의 가호 사름이 업서 오히려 성인을 못
호디라. 방벽이 형세와 위엄을 빼 만단을 종유호나 호곶갓디 낙낙호니 므츄내 홀 일이 업는디라 대군이 듯
고 쫓의 하디 나의 풍치와 기예와 지위 거의 이 기성을 가히 동호리라 하고 이에 나라히 품호야 곱오디 관
셔의 누디와 물식이 가히 호번 보왓죽하오니 신이 원컨대 도애 청령호 썰를 미쳐 목욕정스 일흠을 비러 장
츄 가보고져 호와 감히 고히나이다. 상이 곱오샤디 도타 호시고 도신의게 분부호샤 호야곰 발네호야 지공호
라 하시니 대군이 흥기를 점복호여 지명의 맛당이 발호려 호더니 최성이 홀연 와 뵈거늘 대군이 곱오디 엇
디 그리 적연이 오래 오디 아니호더니 더호야 곱오디 한 천호 종적이 감히 즈쵸 귀문의 발뵈디 못호옵더니

이제 듯조오니 죠가셔 오샤 장차 관셔 흥츠를 흐신다 호오매 쇼싱도 쏘흔 흥 번 녕광당 보을 윈이 잇삽더니 감히 뒤히 좃기를 청흐느이다. 대군이 크게 깃거 곁오디 그디 괴솔과 반전은 맛당이 너 흥똥으로브터 칙응 흐리니 그디는 모롬죽이 단신으로빠 오라 최싱이 곁오디 천인이 일싱의 것기를 너엿느니 엇디 감히 귀흔 흥츠의 폐를 기치리잇가 발당흐시는 날의 니르러 다만 후진을 짜라 저녁참의 흥번식 뇌리이다. 최싱이 패상의 니르러 주막의 의탁한디라 이 쟈 관셔빅이 대군을 경상의 영후호고 일영의 괴구와 위의를 다하여 뼈 밧 들식 큰 잔치를 녑광당 우히 베풀고 슈령은 구름 갓디 모히고 군단은 전도호며 병장의 화신흘과 싱초의 흰 천흘과 주찬의 풍비호미 결을하여 괴록디 못홀러라. 최싱이 쏘흔 나아가 말석의 참예호엿더니 그 기싱이 거문고를 안고 가운데를 당하여 안즈매 어엿분 즈질과 괴이흔 티되 무르녹고 고아 사름에게 뵈이느디라 머리 를 숙이고 눈섭을 거두워 다만 자리압만 보거늘 대군이 주벽호야 안자 나로솔 다듬고 담쇠즈약호고 신치를 과요호여 그 기싱에게 눈을 쓰스디 그 기싱은 즐겨 흥번도 눈을 두로디 아니하니 만췌 흥이 업더라 최싱이 통인을 불러 그 기싱 안은 거문고를 가져오라 호여 무릅우히 노코 손을 문무현을 튼니 미쳐 그 소리를 일오 디 못호여 그 기싱이 잠간 추파를 구을리며 저기 옥치를 열고 몸을 번득이며 거름을 움겨 최싱의 것히 나아가 안자 곁오디 원컨대 서방님은 흥 곡도를 트쇼셔. 쇼인이 맛당이 노래로빠 화답흐리이다 흥대 최싱이 조차니 거문고 소리와 노래 곡되 다 절되러라 기싱이 쏘 최싱드려 닐러곁오디 쇼인이 맛당이 쏘흔 거문고를 타올 거시니 서방님은 쏘 맛당이 노래로빠 화답호쇼셔. 최싱이 쏘 조춘대 거문고 청아호고 노래 표일흐니 스췌 동식흐느디라. 그 기싱이 좌상의 잇는 사름을 살피디 아니호고 다만 두 눈을 최싱에게 뵈다 깃브물 이 괴디 못호거늘 대군이 무식하미 이에 극흔디라. 만췌 드디여 한 말도 업스니 최싱이 좌똥의 광경을 슬피고 병탈호고 물러니러나니 대군이 즐겨 머므르디 아니호느디라. 최싱이 계유 누히 느린 후의 그 기싱이 대군과 와 다똥 도뵈에게 청호야 곁오디 쇼인이 이 성연을 피셔 문져 가기를 청호오미 췌 만스 무석호오나 쇼인이 본디 급흔 흥복통이 잇습더니 실로 춤아견디기 어렵습기 감히 물러도라가물 청흐느이다한대 대군과 도뵈이 갈스록 더욱 패흥호여 머물러 유익호미 업는고로 즉시 허락호고 즉시 하인으로 하여금 그 기싱의 간 곳을 살펴 알라호 죽 바로 숫막문으로 도라 최싱의 머므는 곳을 츠자 드러가니 최싱이 놀라 곁오디 네 엇디 잔치 파히기를 기드리디 아니호고 즈레 물러 왔는다. 기싱이 곁오디 쇼인이 엇디 서방님을 쏘로디 아니흐리잇가. 쇼인이 세상의 난디 열닐곱의 지원이 오직 흥 절질을 어더 디괴에 짝을 삼고져 흥는고로 공후대인을 우원 믅옴의 걸리이다 아니호더니 서방님 지췌 이러툷 흐시니 원컨대 금야로부터 몸을 허호야 쇼인의 평싱을 뼈 뭏고져 호노이다 최싱이 곁오디 내 남즈로 너7툷 절색을 보고 엇디 능히 믅옴이 업오리오마는 쏘흔 반드 시 대군의 느려오신 본 췌을 알거시니 이제 대군과 띠미호면 귀공즈의 무식호미 맛당이 엇디홀가보며 내 천흔 사름으로빠 너를 갖가이 흥 죽 죄를 도망홀 배 없스니 네 모롬죽이 썰리 가고 썰리 가라. 내 처음은 숫막의 머므러 자고져 호엿더니 네 연고로 뼈 오늘날로빠 길흘 췌나디 아니티 못호니라 호고 말을 파호매 바로 대동강 비의 올라 둥화 췌히 다드라 자고 그 후로브터 최싱의 자췌 다시 세상의 들리디 아니호니라.

고통신이인뉴셔

성승지 삼문이 누의 이셔 당흔호여시디 가난호여 디별 길이 업느디라 그대인 승이 황희도의 가 췌로호여 혼슈를 출히라 흥대 삼문이 곁오디 췌로호는 길이 스부의 홀 배 아니라 하니 그 대인이 호디 이 길히 아니면 자슈홀 곳이 업스니 내 길흘 막디 못호리라 삼문이 디헿호를 청호야 일마일동으로 길흘 난 디 여러 날의 흐르느 날이 저물고 숫막이 먼디라 바야호로 민망호여 호더니 홀연 흥눔이 뒤흘 췌라 고히호 곁오디 만일 산똥길로 가면 가히 삼십니를 어더 춘점의 다똥기가 쉬오니 쇼인이 청컨대 던도호리이다 삼문이 즐겨 조차

미 "히 산을 넘어 점점 깊은 곳으로 드러가니 대로의 가기는 임의 절원헌디라 삼문이 뜻의 도적의 무리 유
 인하여 드러오민가 헌디 형세 홀 일 업서 마디 못하여 쓰라가더니 혼 뉘를 넘은 죽 므올이 이셔 너르고 그
 가운데 큰 기와집이 있는디라 그 높이 삼문을 문 알피 세우고 드러가 주인에게 고하여 즉시 부르거늘 드러
 가니 팔십여세 노인이 이셔 도위에 느려 마줄 시 네뉘 즈뉘 거만하여 후싱으로써 더접하니 삼문이 처음의
 그상피 괴위호를 놀라더니 밋 말을 접호매 삼도를 널리 통하고 만리를 곱히 아는디라 삼문이 천연하여 망
 양지탄이 있더니 유옹이 곁오디 그디 이번 길히 므슴 일을 위호야 어느 곳을 가는다 삼문이 연고를 고헌대
 유옹이 곁오디 독서 쇼년이 이 길히 이시미 맛당티 아니호도다 삼문이 곁오디 모르는 거시 아니로디 마디
 못호미로다 유옹이 곁오디 빨 바 혼슈는 노한의 집의셔 출혀줄 거시니 모릅죽이 이 일로조차 도라갈디어다
 삼문이 그 말을 듯고 더욱 도적이 금전이 만코 의기잇는 늙인가 의심하여 구디 스양호대 유옹이 곁오디 그
 러호면 밋디 아니호야도 해롭디 아니호거니와 종의 곳의 가기는 결단코 가티 아니호니 바로 동으로 도라가
 미 맛당호니라 이거시 노부의 서러 스랑호는 뜻이로라 삼문이 곁오디 공경호야 그르치물 바드리라 석반 후
 의 불을 혀고 글말홀 시 더욱 미 "호여 마디 아니호니 삼문이 점 " 의심을 풀고 도 잇는 어른인가 호여 곁
 오디 장인이 국낭과 식견으로 엇디호여 궁산의 종노를 호는다 유옹이 곁오디 노물이 지체 심히 한미호니
 세상의 쓰이기를 어이 브라리오 인하여 곁오디 밤이 임의 곱히시니 낭녀의 가 자고 잘 도라갈디어다 새배
 썰날 제 고타보다 못호리라 하고 인하여 작별호고 나왔더니 이튿날 새벽의 노옹의 말을 의지하여 동으로
 도라갈 시 물 우히셔 스스로 싱각호여 곁오디 노옹이 날을 인도호미 유리호니 내 즈레 도라가미 해롭디
 아니호디 혼구를 장춧 엇디 출히리오 므슴의 민망호여 호더니 밋집의 밋츠매 상하니외 브야호로 혼구를 성
 히 꺾츠와 괴식이 즈뉘 혼 " 호거늘 고이호여 무른대 그 대인이 혼 당 편지를 내야 뵈여 곁오디 이거시 네
 편지라 처음 공 비든 거시 오뉘 냥이 되니 문져 보내여 혼슈를 출히게 호고 맛당이 니어 슈습호여 천 " 이
 도라가안노라 호엿는 고로 그 돈을 목금 혼슈를 경영호노라 호대 삼문이 그 편지를 자시 보니 필적과 자획
 이 완연히 내 손으로 난 것 갖터여 조금도 다른 거시 업거늘 삼문이 이에 크게 놀라 비로소 노옹이 신인인
 줄 미뉘더라 밋 오신으로 더브러 상왕을 회복호기를 꾀홀 시 삼문이 그 대인괴슬와 곁오디 이 일의 의리는
 반드시 그곳 노인에게 절정호 후야 가히 결단홀 거시니 그 때 갖던 종은 그 길홀 능히 분변호리라 호고 즉
 시 그 종을 불러 편지 던홀 쫓을 니른대 종이 곁오디 그 길이 눈 가운데 이시니 편지 던호기 므어서 어려오
 리오 하거늘 즉시 편지를 빼 든 " 이 봉호여 종의 옷깃 속의 녀허 보내니 종이 드디어 이 전 갖던 므올의
 다드란 죽 뺨과 뼈양이 무성호 곳의 기와집은 흔적이 업고 다만 보니 노인 옛터히 새로 세운 돌비가 있거늘
 종이 낙간 글즈를 아는 고로 비 알피 나아가 쓴 거슬 본 죽 붉은 글즈로 크게 써 곁오디 만고의 유명호고
 천츄의 혈식홀 거시니 일의 가부야 날드려 무러 무엇호리오 종이 그 열여섯 글즈를 벗겨 가지고 도라와 삼
 문에게 고헌디 삼문이 대인괴 엇츠와 곁오디 신인이 임의 날을 허호여시니 다시 므슴 즈져호리오 호고 드
 디어 이에 의논을 덩하니라.

기장가책서졸현

연산도의 혼 명시 교리로셔 망명호야 지향업시 든니다가 보성 싸히 니르러 혼 춘 압홀 디날 시 목이 심
 히 므르더니 한 겨집아희가 물을 깃거늘 명시 우물?의 니르러 물 먹기를 청호대 그 녀이 물을 박의 쓰고
 버들넙 홀홀 터 물의 띄여 주거늘 명시 곁오디 내 갈호기 심호여 먹기 급호거늘 엇디 님홀 띄여 주는다 그
 녀이 곁오디 먼 리 흥호야 목이 갈홀 제 급히 물을 먹은즉 상키 쉬오매 내 님홀 띄오른 님홀 헤디고 먹을
 스이 뉘금 더디어 상호를 면코져 호미로라. 명시 해식을 괴특이 너겨 녀오를 쏘아 그 집을 드러간 죽 버들
 그릇 밋드는 장스의 집이라 남녀 서러 묘화호야 드디어 그 사회 되니 경화 귀골이 돌연이 버들 그릇 밋들

길히 업서 다만 게으로 줌만 자니 뉴기장의 부체 심히 띄워호여 곱오더 더 사회 밥 잘 먹고 줌만 자니 장춧
 어디 뿌리오 호고 밥을 만히 담아 주디 아니하니 그 겨집이 불상히 너겨 미양 누른밥을 7만이 더 담아 주
 어 정의만 서르 도터니 여러 히 디나매 도당이 청명호고 군현이 휘진홀 시 그 명스를 다시 교리를 제슈호고
 팔도의 횡관하니 각읍이 쾌방호야 찾는디라. 그 명시 당시의 갖다가 그 방을 보고 심등의 경희호야 도라오
 니 그 때 마춤 삭일을 당호여 뉴기장이 관가의 버들 그르슬 바티기를 당하니 명시 뉴기장에게 청호야 곱
 오더 니일은 내 맛당이 그르슬 갖다가 관가의 밧티리라 하니 뉴기장이 곱오더 내 미양 손조(소) 가도 잘 밧
 티기 쉽디 못호거든 사회궤터 미렬호 거시 엇디 가 밧틸가본다 현대 명시 구디 청호대 뉴기장이 체 곱오더
 호 번 시험호미 해롭디 아니타 호거늘 이에 허하니 명시 평양납을 쓰고 버들그르슬 지고 관가의 드러간 죽
 그원이 마춤 명스의 전일 문하 무변이라. 명시 섬 알피 나아가 크게 소리호여 곱오더 아미 촌 뉴기장이
 삭례로 바티는 그르슬 드리노이다 현대 그 원이 눈을 썬 노리 미러 보니 곳 도당의셔 좃는 아모 교리오 즈
 가의 증전 섬기던 명스라 창황이 섬의 느려 마자 동헌의 올려 곱오더 어느 곳의 탁적호야 거시다가 이 모양
 을 호야 가지고 와 거시니잇가 도당이 보야호로 나오리틀 교리로 제슈호셔 팔도의 너비 츠츠시니 청컨대
 급히 상경호쇼셔 명시 답왈 죄를 짓고 구차히 사라 뉴기장의 집의 감초여 그 쏘의게 탁신호여 디내더니 오
 늘날이 이시를 뜻호디 아녓노라 태슈 그 명스 본읍의 잇는 뜻으로 감영의 보호고 인호야 흥니를 출혀 아뉘
 으로서 바로 상경호쇼셔 청호대 명시 곱오더 다년 주각의 정에 또 조강의 의를 겸호야시니 아마도 그 집의
 도라가 고별호게 호여시니 내 시방 가니 그더 니일 나와 작별호미 가하다 호고 드더여 그 원의 주는 새 의
 복을 아니 닙고 도로 그 모양으로 나와 뉴기장이드려 님러 곱오더 그르슬 무스히 밧텨노라 하니 뉴기장이
 곱오더 소르개 천년 사라 썬 호나 잡는다 하니 우리 사회 그릇 잘 밧틴 일이 진실로 이상호 일이로다 호고
 오늘 저녁은 밥을 잘 담아 먹이라 니르더라 붉는 날 명시 일죽이 니러나 썬을 쓰니 뉴기장이 또 곱오더 우
 리 사회 어리고 게으르므로 뼈 어제 그르슬 잘 밧티고 오늘 또 일죽 썬을 쓰니 니일은 희가 셔호로 듯게
 호였고 호거늘 명시 명석을 썬 가운데 편대 뉴기장이 곱오더 이는 우엔 일고 명시 곱오더 본관 안전이 맛당
 이 흥호실 고로 기다리는 일이로다 뉴기장이 곱오더 본관 안전이 엇디 뉴기장의 집의 나오실 니 이시리
 오 사회 진실로 병들고 밧쳐 이런 말을 하니 어제 뉴기도 응당 밧치를 인호야 둥도의 브린가보다 현대 명시
 곱오더 내 엇디 헛말을 호리오 이윅고 본관 공방 아전이 돛출 끼고 추창호야 드러오니 뉴기장의 부체 놀라
 도망호야 숨거늘 태슈 드러와 명스로 더브러 돛출 눈화 안자 명스의게 청호야 곱오더 원컨대 수뻐 뵈옵기
 를 청호노이다 명시 뉴기장의 썬을 나오라 현대 형차 포군으로 얼굴을 7다듬고 나와 원의게 절호야 빈대
 안식은 슈삽기 아니코 거지는 서어호미 업더라 태슈 곱오더 이 명스기셔 수뻐 집의 탁적호고 수뻐의 지성
 으로 부호호시를 힘납어 오늘날이 이시니 이 명스를 위호야 티샤호를 이기디 못호노이다 그 지어미 디호야
 곱오더 지천호 몸이 외람이 군즈의 **건줄**을 밧드러시니 전연 이려러드시 귀호신 줄을 슬피디 못호야 디접호
 고 주션호미 거만호고 무례호미 만하 호갓 무호호 신고만 기쳐시니 죄만코 붓그럽기를 곱올티 못호니 엇디
 치샤호시를 당호며 호물며 이 천호 겨집을 외람이 수숙이라 일크라시니 황송호여 손복호게 호얏노이다 태
 슈 뉴기장이 부체를 츠자 **쥬육**을 먹이고 츠문호더라 이윅호여 님읍 슈령들은 일산을 나보겨 오고 순영의셔
 는 비장을 보내어 문후호고 각 역 의물들이 일시의 디령호고 궤유호는 짐바리 낙역히 문의 7독호디라 명
 시 본읍 윈드려 님러 곱오더 더 지어미 미록 천인이나 임의 내 몸의 비절호 일흠을 비렸고 여러 히 서르
 의지호여 내게 정성을 극진이 호여시니 이제 가히 썬치치고 가디 못호 거시라 원컨대 그더는 호 샷갓 가마
 를 7츠와 호여금 날을 썬와 서울의 득달케 호라 하니 본슈 그 흥호를 출히디 명스 부인의셔 감티 아니코
 날을 점복호여 밧정호니 전후의 호위호는 성호 위의 궁향의 빛나더라 밧 명시 상경호여 숙비호고 등디호매
 상이 전의 어디 가서 주접호던 형상을 무르시니 명시 시말을 7초 알외대 상이 차탄호야 곱오사디 이 지어
 미 네게 호호호미 이러호 하니 네 가히 천첩으로 더접디 못호 거시니 내 특별이 츠부인을 명호노라 호시니

그 지어미 종신틈록 영귀하다 니르더라

지이동음관귀우

경스의 네 걸령이 당도령이란 재 이시니 혼 음관이 불상이 너겨 두터이 밥을 주니 걸령이 인흐야 즈조
 든니더니 그 때 **둔우치 평성의 개장 음세평이와 당도령을** 무서워 혼느니라 당도령을 길히서 만난 즉 창황
 이 절을 하니 가히 당도령이 네스 걸령이 아닌 줄 알리러라 흐르는 음관이 동대문을 나가러니 사름이 주려
 죽은 거슬 쓰으러 내여 오거늘 그 얼굴을 보니 곳 걸령이 당도령이라 음관이 천연흐야 탄식하기를 오래 흐
 고 갔더니 그 후의 음관이 녕남을 갈 시 지이산 동구를 지나다가 길히 혼 쇼년을 만나니 청녀를 타고 돌려
 다니며 물 우히서 음관의게 읍흐야 곶오디 산이 깊고 날이 저뜨러시니 내 집의 와 자미 엇더흐는 내집이
 곶 가운데 이셔 예셔 십여 리는 되느니라 음관이 쓰라드러가니 독니와 모옥이 쇼쇄하여 진애가 업느니라
 빈췌 좌를 덩흐매 주인이 곶오디 오래 니별흐였다가 서르 만나니 깃브물 이기디 못흐노라 음관이 곶오디
 우리 언제 친흐미 잇느냐 주인이 곶오디 청컨대 내 얼굴을 츠서히 보라 음관이 오히려 모르거늘 주인이 곶
 오디 나는 곳 넷 적 존탁의셔 밥 빌어먹던 당도령이로라 음관이 곶오디 내 일즉 동대문기셔 당도령이 주려
 죽어 쓰으러내여 오는 거슬 목도흐였거늘 주인이 스스로 당도령이라 흐미 니 밧긴 듯 흐도다 주인이 곶오
 디 내 그 때 주린 죽엄 되미 곳 시히하여 신선이 되미라 그더 물을 세이고 탄식흐는 소리를 내 비록 죽어
 누어시나 오히려 듯고 능히 아라 지금 감격하여 흐노라 시히혼 후로브터 팔년의 쥬류하여 텃하의 모든 신
 선을 쓰라 노러니 이 명산을 스랑하여 집을 짓고 사디 금을 타고 브람을 어거하여 어느 곳의 니르디 못흐리
 오 마춤 그디가 이 산을 다니는 고로 청하여 넷 정을 펴노라 혼 번 자고 니별홀 시 아춤 저녁 도리과 기장
 의 음식이 정결하고 가히 먹엄죽 하여 년화계 찬물이 예서 다룰 거시 업더라

사악승의스덕덕

홍부장은 고양 사름이라 호반 과거 보라 가던 길히 보니 가라도 완악혼 중이 청암찰방 니힘을 겁박하여
 가마를 아사 뵈골로 올라가니 역하인이 중놈의 용력을 무서이 너겨 감히 알프로 나아오디 못흐느니라. 중놈
 이 올라가며 가마당을 드러헛티고 드미러 보와 곶오디 얼굴이 어엿브도다 하니 그 부인이 우는 소리 심히
 처절헌디라. 홍부장이 통분흐를 이기디 못흐야 장춧 중놈으로 더브러 빠호고져 현대 동행흐는 거지 다 곶
 오디 브절 업시 죽으미 유익흐미 업느니라 하니 부장이 곶오디 죽을디언딩 이 형상을 보고 엇디 팔연허리
 오 하고 이에 정녕 대를 잇고져 중놈의 알프로 나아가 크게 꾸지저 곶오디 이 중놈아 " " 빅일지하의 무례
 흐를 엇디 이러트시 흐는는 현대 중놈이 흘거여보와 곶오디 이 아히 네 집의셔 젓 먹으미 족흐거든 엇디
 남 " 이 불긴흔 말을 흐는다? 부장이 꾸짓는 소리를 더욱 놓현대 중놈이 이에 가마를 평디의 느리와 노코 부
 장을 향하여 느려오며 곶오디 이 아히를 빼 쏘을 누이리라 흐고 바회로 인연흐야 느려오랴 할 제 부장이
 바회 아래로브터 중의 니마를 츠니 중이 짜히 것구러지느니라. 부장이 발로써 중놈의 목을 드디고 정녕대로
 힘을 다하여 중놈을 쓰리니 중놈이 즉시 죽은디라. 이에 청암관 하인들의 도망하여 숨은 놈을 불러 하여금
 가마를 뵈셔가라 하니 부인이 가마 안히셔 울며 일빅번 절하여 복 " 칭은허더라. 부장의 손은 곳 모당이니
 빅즈춘손이오 디더로 지상이 나니 사름이 빼 헛디 완악혼 중을 죽이고 부인을 구흔 남은 경시라 허더라.

제선고효조견위

서약봉 괴일의 그 아들이 꿈을 꾸니 약봉이 와 교위우히 안자 그 아들드려 닐러 곶오디 밧기 내 벗 아모 령공이 와시니 네 마자 드리라 현대 그 아들이 그대로 하니 약봉이 또 아들드려 닐러 곶오디 아모 관세 또 문 밧기 와시니 네 나가 피서 오라 하거늘 그 아들이 또 그대로 하였더니 7장 오랜 후 약봉이 또 아들드려 닐러 곶오디 문외에 또 벗이 와시니 청하야 오라거늘 그 아들이 문외에 나가 각의게 드러가기를 청현대 각 이 빈축하여 곶오디 내 의복이 히여지고 더러우니 드러가기 붓그럽다 현대 그 아들이 각의 말로 약봉과 고 현대 약봉이 곶오디 옷 더러운 거시 방해롭디 아니하다 하고 근청하여 불러 네 사름이 혼 가지로 교위 우히 안자 제물을 늦 " 치 먹은 후 파하여 가더라. 이후의 약봉 아들이 최후 마자드리던 존장의 아들과 혼가지로 동관을 하였더니 약봉 아들이 무려 곶오디 선존당 별세할 때 습념의 쓴 의복이 모습 의복이다 현대 그 벗이 울며 곶오디 선인이 선천 귀향 가서서 임진난당의 상식 니시니 덕소의 당난하야 넘귀 망도하야 다만 상시 님으시던 페루혼 의복을 쓴고로 이 일이 종신지통이 되더니 그더 었디하야 의복 말을 못는다 약봉아 들이 곶오디 내 이상한 꿈이 잇느니 더 즘음과 우리 선인 제스날 선인 정녕이 상시와 곶조오셔 상시의 벗님 세 분을 청하야 드리시니 선존당기서 거기 참여하신다라. 처음은 의복이 페루하여라 하시더니 나중 강청하여 드리오셔 제물을 혼가지로 잡습고 가져시니 그더 내 말을 허탄이 너기디 말고 새로 관디를 지어 선존당 산소 앞피 가 소화하미 가한다. 그 사름이 그대로 하였더니 수일 후 약봉 아들 꿈의 동관의 부친이 와 닐러 곶오디 그더 혼 말을 인연하야 더러운 오솔 구원의 밧고아 님으니 감행호물 이기디 못하노라 하고 또 그 아들의게 현몽하야 티사하더라

차일념상좌폐단

남궁두는 함열 사름이라. 위인이 강녀하야 사름으로 더브러 드토기를 도화하니 사름이 다 피하더라. 진스로 태혹의 거지홀 시 상해 천리마를 두고 어두울 때면 타고 남으로 식골의 느려 그 사랑하는 첩을 보고 새벽이면 다시 서울로 올라오더니 일일은 첩의 집을 바라보고 오더니 창틈으로 여여보니 첩이 제외달을 드리고 자거늘 뒤 드디어 활을 드리여 창틈으로 쏘아 죽이고 거적의 두 죽음을 빠 여튼 굴형의 녀코 그 집의 니르디 아니하고 왔더니 외달의 집의서 죽음을 엇고 곶오디 본디 외달을 피워하여 무고히 죽이고 그 자취를 그리오고져 하야 그 첩조차 죽이다 하고 관가의 청하야 두를 태혹의 가 잡아 관가로 올 시 두는 본디 부재라 그 안해 두의 잡히여오물 듯고 주찬을 성히 곶츠와 가지고 초로드리의 와 마자 먹일시 슈하하는 재 또한 다 취하디라 체 틈을 타 밍거술 굴러 하여금 도망하라 하니 뒤 드디어 대둔산동의 드러가 반년을 숨었더니 꿈의 사름이 곶하야 곶오디 관치 이제 니르니 쉼리 가라 하거늘 썬여 또 드러나니 관치 조차 잡디 못하디라. 드디어 머리를 싸고 죽이 되어 부석스로 향할 시 절의 다듯디 못하여 길히셔 혼 죽을 만나니 그 죽이 흘기여 두를 보와 곶오디 가히 앓갑다 도흔 사름이 죽이 되었도다 그러하나 느즌 거시 혼이로다. 또 곶오디 올 때에 또 두 사름을 죽였도다. 뒤 그 말을 신기히 너져 절하고 청하야 곶오디 원컨대 선스는 날을 신술을 가르치라. 죽이 곶오디 내 아는 거시 업스니 었디 그더를 가르치리오. 뒤 구디 청현대 죽이 곶오디 나는 진실로 범상한 죽이어니와 내 신시 치상산중의 이셔 날을 용렬한 지조라 하고 다만 상 보는 혼 지조를 가르티기의 이 썬 아는디라 그더 신술을 비호고져 홀 디내 내 스심을 츠자 뵈오라 뒤 치상산의 가니 치상산이 겁도 아니하고 크도 아니하나 두로 좃기를 세 히를 디내여 돌과 남글 세디 죽이라 하는 거스 업는디라 뒤 좃다가 못하야 빠 하디 부석의 죽이 날을 속였다 하고 장춃 산을 나올시 홀연 보니 복성화 빠 흘러간 슈의 이셔 사름이 갓 먹은 거시라 뒤 놀라고 깃거 빠 하디 이 복성화 빠 필연 먹은 사름이 이시리라 하여

간슈를 년하야 간슈 근원으로 드르니 저근 수풀이 잇거늘 수풀을 헤티고 드러간 죽 골이 이셔 흰출하고 뛰로 덤흔 훈 암즈의 훈 중이 무릅흔 세오고 □자 두를 보더 본 테 아닛는디라 뒤 무수히 절하고 신통훈 술을 비화지라 훈대 또 드른 테 아니하고 여러 번 비화지라 하니 그 중이 아므것도 모르노라 후다가 또 꾸지저 곶오더 피 가운데 깊히 잇는 놉이 무어슬 알리오 오신 손님이 이래도록 곤히 보체니 이런 밍냥훈 일이 어디 이시오. 이러툃 하기를 사흘이 지나매 그 중이 비로소 곶오더 그디 뜻이 심히 곤절하니 비록 ㄱㄹ첨죽 하더 그디 지죄 용널하여 썬치게 홀 길 업스니라만 죽게 아닛는 술로 ㄱㄹ치려니와 밥 먹기를 쓴허야 홀 거시니 능히 쓴흘가보나 뒤 디답하더 므어시 어려오리잇가 그러나 뒤 본디 만히 먹어돌연이 절납하기 어려온디라 그 중이 ㄱㄹ쳐 □날은 아츰저녁의 각 다습식 먹게하고 두어 날 후는 일종하게 하고 또 두어 날 후는 죽으로 디하고 또 두어 날 후는 아조 쓴허도 비 곱프디 아니헌디라. 즈을 아니 잔 후 홀 거시니 아니 잘 가보나 뒤 하더 그리호오리이다. 즉시 구디 안자 자디 아니키를 스나흘을 하니 몸이 기우러지고 머리 무거워 견디디 못홀러니 두어 날을 견디니 비로소 조오름이 업는디라 그 중이 저기 것버 곶오더 네 심녀이 능히 이러툃 하니 족히 상재 되리로라. 인하야 황정경을 내야 곶오더 만 번을 넘으라 만 번을 넘으니 그 중이 너 외단 비결려 주어 하여곰 힘빠 공부하기를 두어 둘을 하니 일만 생각이 업서지고 몸과 뼈 점점 가브압더니 또 열 둘만의 홀연이 입 안 웃니 무음으로서 훈 조고만 구슬이 썬러지는디라 가서 그 중을 띄야 곶오더 이므습 상체니잇고 그 중이 곶오더 이는 참등 니른 바 큰 가장 빨 가튼 거시니 이 구슬이 난 죽 아홉 번 구울리기 마디 아닌디라. 다만 천〃이 길러 때를 기드리고 삼가 조급훈 의스를 내디 말라 훈 둘 남죽하여 뒤 홀연 생각하더 내 입의 신션되기는 판단하엿거니와 다만 어느 때 빅일승턴홀고 극히 답〃 하디 하더니 홀연 구규의 불이 급히 띄여올라 귀와 눈과 코와 입의 다 피 흐르고 혼절하야 짜히 것구러지니 그 중이 보고 놀라 곶오더 내 일을 그릇 민드도다 〃 〃 하고 급히 단약으로써 목 굵기 부어 썬여 훈 보람이 디난 후 겨유 능히 말하는디라. 그 중이 곶오더 내 간하는 범이 물과 불이 고른 후의 능히 이루는디라 그런 고로 조훈 므음을 먹디 말라 하엿더니 네 뜻디 아니하엿도다. 대범 조하면 불이 동하고 불이 동하면 물이 출각하는디라. 이러므로 네 일념이 조동하매 불이 나 피 흐르도다. 그러나 네 스스로 선분이 업서 이러툃 하니 홀홀 거시 업거니와 다만 내 일을 크게 그릇티도다. 뒤 무로디 제지 일념이 차착하여 선도를 엷디 못하니 이 진실로 내 타시어니와 다만 스성님을 그릇친 죄시 무어시니잇고 중이 곶오더 내 평성 전말을 네 득도하기를 기드려 고히랴 하엿더니 네 이제 스스로 그릇쳐시니 여기 머므러 유익하미 업는디라 맛당이 내여보낼 거시니 일로조차 다시 보디 못홀고로 너드려 니르느니 삼가 세상의 던티 말라. 나는 본디 경상도 안동 사림이라 송신종 희령 이년의 나 열 네 설의 홀연이 만신 창질을 어더 죽기를 비러도 죽디 못하고 또 답답하야 견디디 못하는디라 부모고 곤청하야 산똥의 메여 버리니 비록 심히 알프나 또한 심히 주렸는디라. 누은 것히 풀이 이셔 일흠은 아디 못하디 줄기와 납히 연하고 보드라운디라 손을 들히여 홀터 먹으니 인하여 비 곱픈 줄을 썬뎡디 못하는디라 또 밍회 와 혀호로 그 창쳐를 할트니 알픈 기운이 곱슈의 드러가거늘 내 범드려 닐러 곶오더 엷디하야 날을 썰리 먹디 아니하고 알히기를 이래도록 하는다. 범이 할기를 더욱 심히 하여 윈 몸을 다 할거늘 본 즉 창질 썬지 다 썬러졌는디라 일로조차 인하야 완합하야 훈 열흘 후의 몸과 슬히 희기 눈긷튼디라. 또 날마다 것히 풀을 먹으니 몸이 능히 움죽이더니 잠간 오랜즉 또 놀내어 것기를 잘하더니 더욱 오랜 즉 지절이 표〃 하여 들리고져 하거늘 몸을 움죽여 누는 형상을 지으니 자연 느라가는디라 드디어 놀기를 덕이니 점점 놀매 더욱 먼리 가는디라. 흐르는 태백산 꼭다기의 느려서니 중이 이셔 날을 보고 혼연이 마자 잇그러 집의 드러가 신션의 디계를 ㄱㄹ치니 대개 텃디 스이의 두로 신션이 이시디 홀로 우리 동방의 업는디라. 그러나 범의 맛당이 팔빅 선인이 날디라. 그런고로 전일 장도시 옥인으로써 의상대스를 주어 동방의 신션을 ㄱ옴알게 하니 의상 대시 드디어 동방을 맛다 몇 히를 지나여 나 만나던 태백산 똥을 어더 그인을 던하여 동방을 ㄱ옴알게 하고 의상대스는 하늘의 올라가고 태백산 중이 또 내게 던하고 하늘의 올

라 가더니 나는 연분이 더더여 팔빅년 너의 혼 사름도 전도하리를 었디 못혀여 세상의 머므러 이 때그디 하늘의 오르디 못혀였다가 이제 비로소 너를 만나니 심녁이 즈뫓 도흔디라 그 성도하기를 기드려 장춧 던 하고 가라 하더니 네 쏘 이러하니 아디 못게라, 일로조차 몇 히 만의 능히 던홀 사름을 어드리오 이 니른바 내 일을 그릇하다 말이로다. 뒤 중의 비쭈 아래 오히려 막은 구웁이 이시믈 보고 므슴 연고로 오히려 비쭈 구웁이 이샤믈 무룬대 중이 곱오디 이거시 곳 내 단방하는 곱기라. 네 보고져 혼 즉 맛당이 뵈 거시니 모름 죽이 놀라디 말라 하고 즉시 그 구웁을 싸히니 금빗티 소사나 **황연지 집의** 그득혀여 심히 무서운디라. 중이 다시 막거늘 뒤 쏘 무러 곱오디 스싱님이 여긔 거시니 혼의 일이 므슴 일이는 중이 곱오디 다른 일이 업서 미년 정월 초하르날 모든 신선이 상테긔 도회하니 초이일은 동방 신선이 다 와 내게 도회하니 동방지경은 이 나의 맞든 싸힌 고로 모든 신선이 그 직분을 닷그미디 나는 인간이 더러워 도회 밧기 어려운 고로 미양 하늘의 올라가 도회를 밧고 도라오더니 니 년이 이제 머디 아니하고 너를 위혀여 예셔 도회를 바다 관광을 시길 거시니 네 아직 머므러 잇다가 보고 가라. 정월 초이일의 미치는 평명의 혼 **치식이등이 스스로** 나모 싣히 걸리더니 이윅혀야 년혀여 츠레로 와 걸리기를 몇천만인 줄 아디 못혀는디라. 공둥으로브터 선악이 은 "혀여 금광이 찰난하고 상셔의 안개 일천 곱이 동구의 미만혀였는디 모든 신선이 난봉을 멩에하고 귀룡을 타며 흑 년화보전도 트 패옥이 당당하고 관면이 휘황혀야 텃일이 보이는디라. 녀선은 다 운무 치마와 구장으로 옥걸이 징징혀야 느려오고 그 남아 **던농** 귀왕이 동방의 밋인 자는 아니 니르노니 업서 천티만상이 기 "괴" 혼디라. 중과 안자 절을 밧고 신선 등 당위 놓고 체통이 둥흔 자는 흑 거슈혀며 흑 몸도 곱히며 그 장 높흔 자는 당의도 느리며 녀선은 존비를 의논티 아니하고 몸을 니러 마자 좌를 덩혀매 네뵈 엄숙혀여 범안의 놀라운디라. 그 슈작하는 바는 다 아디 못홀러라. 이윅혀여 등 하나히 나모로브터 올라가더니 년혀야 올라가 슈유의 다 하고 모든 신선도 츠레로 하덕하고 올라가니 위와 거둥이 올 적과 혼 가지라 뒤 장춧 산을 날 시 무러 곱오디 테지 일로조차 맛당이 혼 가지도 일우미 업스리잇가 중이 곱오디 네 세상의 니르러 나의 경계를 힘빠 흥흔 죽 가히 팔빅년을 사라 천지의 신선이 될 거시니 만일 공부하기를 마디 아닌 죽 후턴 기운이 선탄 기운을 니어 상승하기를 가히 괴양하리라. 니별을 남혀여 두드려 닐러 곱오디 네 팔지 맛당이 즈식 둘 이 이실거술 내 전도하기 위급혀여 강잉혀여 너를 그르쳐시니 길 일우디 못혀미 맛당하도다. 그러나 처음의 너를 그르칠 때 먹이던 단약이 정슈 곱글 막아시니 만일 다시 여디 아니흔 죽 싣을 못혀리라 하고 드더여 단약을 내야 하여곰 먹으라 하여 곱오디 이 약을 먹은 죽 정혈이 열리리라. 뒤 도라가 그 집을 츠즈니 그 처는 죽언디 오래고 둥간의 왜란을 디내여 집과 던답이 탕연혀야 자취 업는디라 이에 ���성의 쏘의게 당가드려 과연 두 쏘를 나흐니라. 사름이 흑 무러 곱오디 오히려 능히 도를 닷는가 뒤 곱오디 다 니졌다 하고 그 침식 거거와 기육범절이 네 슝의셔 다르미 업스디 나히 ��� 세의 갖가오디 오히려 아히 얼굴 갖더라.

의쌍님명기슈홍

노옥계 진이 쇼고 가빈혀여 남원 싸히 살 시 나히 큰 총각의 니르디 당가 드디 못하고 못 누의 이셔 과시 ���룩 혼인하디 못혀였더니 마춤 그 당숙 무변이 선천 부스를 혀였거늘 옥계의 모친이 하여금 누의 혼슈를 선천 고을의 가 비러보라 혼대 옥계 간신이 느려가 선천관 문 밧기 다드르니 아히 기싱이 이셔 마자 닐러 곱오디 흥치 어드로브터 오시느니잇고 옥계 그 슈슈 당달이 되믈 니르니 기싱이 곱오디 쇼인의 집이 관문 밧 몇 재 집이오니 흥치 반드시 쇼인의 집의 덩혀쇼셔 옥계 허락하고 도라가 슈슈를 본 후 밧것 하쳐로 나 운대 그 기싱이 스스로 침석의 피시기를 청흔대 그 정회 관흡혀더라. 기싱이 온 연유를 못거늘 혼구 빌라 오므로 더답혀니 기싱이 곱오디 쇼인이 스쏘 슈단이 심히 그늘신 줄을 그웁이 아오니 지친이시나 반드시

그 녀 "이 구급하기를 밋기 어려우리라. 쇼인이 도령쥬 골상을 보오니 맛당이 크게 귀혹실 거시오니 엇디 가히 스스로 걸터하라 온 손이되시리잇가 쇼인이 적공을 드러 모화 둔 은즈가 이시니 그 쉬 오빅 냇이 되는 디라. 이를 가져도라가시면 녀 "이 혼구를 출힐 거시니 그 남아는 또 맛당이 심니의 조되히시리니 이곳으로 서 바로 도라가시고 반드시 귀귀를 관가의 고티 마르쇼셔. 옥계 곶오디 거취의 이리터시 조홀하면 엇디 당 숙과 꾸중을 만나디 아니히리오 기성이 곶오디 이 짜히 머무시기 여러 날이 되면 불과 사름의 목구멍 아래 귀운을 기드리며 사름의 미첩 스이의 소식만 슬퍼 겨유 도라가시는 횡장의 수십 냇을 어드실 분이오 골육 간 염냥 보기는 놉의게 업슈이 너감맞는니의셔 심히미 잇노니 오늘 새벽의 바로 호연이 도라가시는 것만 꺾디 못하다 하고 즉시 니러나 밤 새도록 횡장을 다스려 서르 보내여 곶오디 도령쥬의 발신히시기 십년 안 히 나디 아니힐 거시니 쇼인이 맛당이 몸을 조히 하고 쫓을 디회여 뼈 도령쥬의 벼슬이 이도의 하여 오시기를 기드릴디니 만나뵈을 기약이 이 혼 도리의 잇는디라 하고 니별을 넘히매 심히 척 " 혼 빗출 짓디 아니히 더라 옥계가 벼야온 보비를 싣고 서울 길로 도르오더니 이튿날 아침의 쥬슈 브를 죽 가 썰을 길히 업스니 그 횡적이 광망흔를 꾸지즈나 안흐로 그 돈을 깨이디 아니흔를 7만이 깃거히니라 옥계 집의 도라가 가져 온 은으로 뼈 누의를 혼인하고 안해를 취하고 곶히여 의식을 조심히미 업서 글의 쫓을 전일이 하여 불수년의 과거를 혼디라 풍위와 지죄 크게 상권을 바다 오레디 아니히여 관셔 암형어스 명을 바다 미복으로 뼈 그 기성의 집의 바로 니르니 그 기 성의 어미 나 마자 넷 안면인 줄 슬퍼 알고 우리 곶히여 곶오디 썰이 셔방 남을 니별흔 후로브터 어미를 버리고 집을 샐레하야 도망하야 간 곳을 모르노라 하고 옥계 셔호로 느려오 매 정신이 전혀 고인 만나 가의 잇다가 망연이 종적이 업스니 놀라 막음을 일흔 듯 하나 그러나 오히려 조귀를 위하야 세상을 도망하고 절을 디회 줄 헤아리고 다시 기성의 어미드려 무려 곶오디 한미 썰 간 후의 일절 존문을 듯디 못히엿는다 한미 디하야 곶오디 근니의 사름이 이셔 던하야 닐오디 썰이 벼야호로 성천 짜 피 절의 머므러 십분 자취를 감춘다 하나 내 늙고 즈란 즈식이 업스니 가슬려 촌줄 길히 업고 다만 스스로 슬픔만 먹으물 썩어이로라 하거늘 옥계 즉시 성천으로 가 윈 경니 모든 절로 출몰하야 종적을 7만이 츠자 혼 곳 심산의 불암이 잇거늘 니르니 중이 닐러 곶오디 혼 녀지 이셔 나히 이십 세나 되엿는디 은냥으로 뼈 밥을 네불흔 중의게 붓치고 인하야 부쳐 안즌 탁즈 아래 숨어 머리를 터버리고 늦치 썰를 뺏디 아니 하고 구디 업디여 형상을 뵈디 아니하고 다만 네불흔 중으로 하여곰 수일 만의 밥을 조금씩 던흔 즉 범당 문틈으로 바다 뼈 주리를 구하고 오줌과 뒤 볼 짚는 잠간 나와 즉시 드러가니 절 중이 혹 녀불인가 의심하고 혹 귀신인가 의심하야 불러낼 길도 업고 또 혼 감히 갖가이 갈 길도 업느니라 하거늘 옥계 이에 네불흔 중으로 하여곰 창틈으로브터 탁즈 밋터 겨집의게 말을 닐러 곶오디 남원 노도령쥬와 서르 츠즈니 나와 보고져 아니히느냐 그 겨집이 중을 인하야 회답히디 등과흔 여부를 못거늘 옥계 바로 어스의 길로 뼈 곶히니 그 겨집이 또 회보하야 곶오디 내 자취를 감초고 곶형을 격그미 전혀 낭군을 위하미러니 허다년의 귀형이 뒤여시니 결단코 거연이 당부를 보디 못힐 거시니 윈컨대 횡춘는 날을 위하야 순일만 이 가운데 머므르신 즉 내 맛당이 머리를 빗고 몸을 빼서 본 형상을 회복하야 새 의복을 입고 단장을 다스린 후의 가히 마자 절히리라 하거늘 옥계 그 말과 꺾티 머므러 여러 날이 되니 과연 귀형을 빼서 화용을 밋쓰고 서르 보매 경도 환열히니 절 중이 비로□ 그 곶절이 잇는 줄을 알고 놀라 탄식디 아니리 업더라 옥계 반갑고 즐겁기 마치 하늘을 초차 느려온 신선을 만난 듯 하여 선천으로 싣고 도라와 모녀로 하여금 서르 만나게 하고 밋 나라 일을 마츠매 경제로 잇그러 도라와 하여금 건줄을 밋들게 하고 종신티록 기이히더라

갑인 계하 초삼 시작하야 초오 맛다.